

2018년 5월 12일 “(가정의 달)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창 15:1-6)

<도입>

하나님은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됨을 본질로 하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격적으로 됨됨이의 요소가 있습니다(남편 됨, 아내 됨 등). 그리고 기능적으로 후손을 낳고 번성하며, 잘 가꾸고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의미적으로는 가족이 화목/협력하면 고난의 극복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측면의 공통적 뼈대는 사랑이며, 사랑 받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창세기는 거의 모든 내용이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담/하와(2-3 장), 가인/아벨(4 장), 노아의 가족(6-9 장), 아브라함/이삭/야곱과 그의 자손들(12-50 장)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들 가정에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 아브라함을 부르심

하나님은 데라(아브라함 부친) 가족을 우르에서 인도하셨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 3 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창조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시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되면 에덴 안에 속한 유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에는 삶에 관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1-2 장을 보면 생육/번성/충만/다스림의 사랑의 권세가 있습니다. 창 2 장에 안식에 동참/누림, 삶의 자리를 가꾸고 지키(노동), 결혼이 나타납니다. 이것의 참 의미를 잃은 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창조 때 계획하신 축복(에덴의 유업)을 잊게 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의 첫 단추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첫 구원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중요한 이슈가 일어났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인가 었습니다.

[2] 누가 상속자인가?

이 주제의 중요성은 아브라함 전체 기사(11 장후~22 장)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B. Waltke 참고). 아래에 대구법을 사용하여 중심 주제를 강조하는 히브리 문학의 탁월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A 데라의 족보(11:27-32)

B 아들에 관한 약속; 아브라함 영적 여정의 시작(12:1-9)

C 사라에 대한 Abm의 거짓말; 주님의 사라 보호(12:10-20)

D 소돔에 정착한 롯(13:1-18)

E 소돔과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14:1-24)

F 아브라함과 언약: 이스마엘의 출생(15:1-16:16)

F'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의 출생(17:1-18:15)

E' 소돔과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18:16-33)

D' 소돔을 떠나는 롯; 모압에 정착(19:1-38)

C' 사라에 대한 Abm의 거짓말; 주님의 사라 보호(20:1-18)

B' 아들의 출생과 아브라함 영적 여정의 정점(모리아)(21:1-22:19)

A' 나홀(아브라함 동생)의 족보-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22:20-24)

이 구조의 핵심 중앙 주제는 15 과 17 장의 언약과 상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고, 사라가 낳았으므로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르라고 하갈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었고 사라도 낳을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여야 하는 이유는

Abm/사라에게서 낳을 거라는 약속 때문이고, 사라는 불임이었지만 임신이 가능해지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상속 받습니까? 15:7-12 절에 나오는 땅(가나안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런데 땅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땅 위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거기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의도된 삶을 회복하는 합당한 유업자가 되는 백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과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상속의 계열을 보게 됩니다(요 8:56).

[3] 본이 된 가장 아브라함

가족이 유업의 중요성을 비전으로 삼고 사랑의 참 권세가 회복되려면 부모역할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의미의 상속은 부모로부터 배워집니다. 그러려면 가장에게 책임이 큼니다. 가장이 에덴에서 의도된 삶, 즉, 진정한 안식(창 2:3), 잘 가꾸고 지키는 것(창 2:15), 그리고 올바른 의미의 결혼(창 2:20-25)을 살아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굴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업의 가정을 이루는 길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여정을 거치면서 단련됩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재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날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생각과 길과 다르신 분입니다(사 55:8). 자녀에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실체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유업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자녀에 대한 약속은 야곱의 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 후, 즉 약 500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500 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환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재(reality)임을 “보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가정의 가장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히 11:19).

<맺음>

가정의 가장들의 믿음의 회복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장은 가정이 창조 때 의도하신 에덴의 본질로 회복되게 하는 비전과 책임을 받습니다. 에덴적 삶에는 참 사랑의 권세의 회복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받기를 사모하시고 겸손 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삶의 기본기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위 내용 참고)
3. 나는 어떤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결단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